

The 논술

고려대

By Jack

목차

1. 고려대 논술 전형 분석
2. 고려대 2015 기출 인문 A
3. 고려대 2015 기출 인문 B
4. 고려대 2015 모의 인문 A
5. 고려대 2015 모의 인문 B
6. 고려대 2014 기출 인문 A
7. 고려대 2014 기출 인문 B
8. 고려대 2013 기출 인문 A
9. 고려대 2013 기출 인문 B
10. 고려대 2013 모의 인문 A
11. 고려대 2013 모의 인문 B
12. 고려대 2012 기출 인문 A
13. 고려대 2012 기출 인문 B
14. 고려대 2011 기출 인문 A
15. 고려대 2011 기출 인문 B
16. 고려대 2011 모의 인문 A
17. 고려대 2011 모의 인문 B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안암캠퍼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II. 전형안내

1. 일반전형

가.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에서 고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인정 여부는 59쪽 기타안내 '3.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참조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210명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영	인문	경영대학	108	이과	자연	물리학과	15
문과	인문	국어국문학과	18			화학과	15
		철학과	13			지구환경과학과	11
		한국사학과	8	공과	자연	화공생명공학과	27
		사학과	14			신소재공학부	43
		심리학과	18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1
		사회학과	25			건축학과	13
		한문학과	8			기계공학부	45
		영어영문학과	34			산업경영공학부	18
		독어독문학과	12			전기전자공학부	55
		불어불문학과	13	의과	자연	의과대학	25
		중어중문학과	17			사범	인문
		노어노문학과	12	국어교육과	14		
		일어일문학과	14	영어교육과	21		
		서어서문학과	15	지리교육과	12		
		언어학과	9	역사교육과	10		
생명과학	자연	생명과학부	32	자연	가정교육과		12
		생명공학부	35		수학교육과	12	
		식품공학과	15	간호	자연	간호대학	20
		환경생태공학부	23			정보	자연
	인문	식품자원경제학과	18	미디어학부	인문		
정경	인문	정치외교학과	26	보건과학	자연	바이오의공학부	22
		경제학과	39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22
		통계학과	24			보건환경융합과학부	38
		행정학과	27		인문	보건정책관리학부	25
이과	자연	수학과	15	자유전공학부	인문	자유전공학부	32

다.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4. 9. 11.(목) 10:00 ~ 9. 15.(월) 18: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 •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므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9. 16.(화) 우체국 접수(등기우편)까지 유효	• 우편접수(등기우편)만 가능함(방문접수불가) •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입학처 일반전형 담당자
제출서류도착 확인 (해당자에 한함)	9. 29.(월) 10: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논술고사	11. 22.(토) ~ 11. 23.(일)	• 고사 장소 11. 20.(목)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 모집단위에 따른 오전, 오후 구분은 아래 '라. 논술고사 안내' 참조
최종합격자발표	12. 6.(토) 17: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학생증 신청서 등 기타 유인물은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시 출력 가능함
합격자 등록	12. 8.(월) ~ 12. 10.(수) 16:00	• 5쪽 모집안내 '사. 합격자 등록' 참조
미등록 충원	12. 11.(목) ~ 12. 15.(월) 21:00까지	• 5쪽 모집안내 '아. 미등록 충원(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참조

라. 논술고사 안내

계열	일시	대학	시험과목	고사시간
자연계	오전 11. 22.(토) 09:30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	필수: 수학 선택: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 (단, 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수학교육과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 택1)	100분
	오후 11. 22.(토) 13:30	생명과학대학(자연계), 의과대학, 간호대학, 정보대학, 보건과학대학(자연계)	필수: 수학 선택: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 (단, 바이오의공학부는 물리, 화학 중 택1,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는 화학, 생명과학 중 택1)	
인문계	오전 11. 23.(일) 09:30	경영대학, 정경대학,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오후 11. 23.(일) 13:30	문과대학, 사범대학(인문계), 보건정책관리학부		

-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만 인정)을 지참해야 함
- 2) 입실 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함
- 3)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 4)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함
- 5) 논술고사 시 컴퓨터용 수정사인펜과 수정테이프를 지참해야 함. 답안 작성은 흑색(연필 사용 가능)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 수정도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해야 함
- 6) 논술고사의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으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음
- 7) 상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를 통해 공지함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계열	최저학력기준	지정 응시 영역
인문계 (경영대학,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제외)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경영대학,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국어B, 수학A, 영어 3개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3개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자연계 (의과대학 제외)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수학B 또는 과탐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의과대학	국어A, 수학B, 영어 3개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	

- 1) 계열은 본 대학교 모집단위 기준임
- 2) 모집단위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3)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

바.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선발	논술 45% + 학생부(교과) 45% + 학생부(비교과) 10%

※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2) 평가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교과(군)

- (가) 인문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 과목
- (나)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 과목

※ 계열은 본 대학교 모집단위 기준임

(2)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54쪽 기타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참조

(3) 학교생활기록부(비교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비교내신

- (가) 대상자: 2010년 2월 28일 이전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교과교육소년원
고등학교교육과정 이수자, 공업계 2+1체제 이수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국내 고등학교 1, 2, 3학년
성적 중 1개 학년 성적만 있는 자, 교과별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지원자

- (나) 산출방법: 동일 모집단위에서 동등한 수준의 논술 성적을 가진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

사.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구분	제출방법		비고
		온라인	등기 우편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0년 ~ 2015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Ⅲ. 기타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반영요소와 반영교과(군)

1) 전형별 반영요소 및 반영교과(군)

전형명	활용지표	반영교과(군)
일반전형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인문계)/과학(자연계)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 과목
학교장추천전형	석차등급	①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인문계)/과학(자연계)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 과목 ② 상기 외 과목

가) 인문계, 자연계는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 계열 기준임

나) 「과학에 관한 교과」는 과학교과로 반영하며 「국제에 관한 교과」는 반영교과(군)로 재분류하여 반영함

다) 석차등급 및 원점수가 기재된 교과목만 반영함

라) 기타 적용방법 및 기준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학년별 반영비율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유무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1	O	O	O	20%	40%	40%
사례2	O	O	X	40%	60%	
사례3	X	O	O		50%	50%
사례4	O	X	O	35%		65%

※ 특정 학년 2개 학기 중 1개 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1개 학기 성적을 그 학년의 전체 성적으로 반영함

※ 학교장추천전형은 '사례1'만 해당되며 반영과목②는 위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나. 교과영역 성적 산출 방법

1) 일반전형

가) 과목별 표준화 점수(Z) 구하기

$$Z =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1)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점수(Z)를 구합니다.

(2) Z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3) Z 점수가 3.0보다 클 경우 3.0으로, -3.0보다 작을 경우 -3.0으로 적용합니다.

1. 1227명 (고려대 논술) > 1042명 (고려대 정시) > 738명 (연세대 논술)

2. 논술 전형 -> '일반 전형'

3. 인문계 11월 23일 (일) - 수능 이후 논술 시험

4. 성적반영비율(우선선발의 폐지) - 논술 45%+ 교과 45%+ 비교과 10%

※ 비교과 반영 방법은?

'종합적으로 산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EX) 2014 고려대

우선선발 : 논술70%+ 교과27%+ 비교과3%

일반선발 : 논술50%+ 교과45%+ 비교과5%

1) 사고(무단)결석일수 2일 이내

2)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3) 수상경력 3개 이상

- 위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시 A로 분류 / 1개 이상 충족시 B /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C등급으로 분류

-> 보통 비교과는 10점 만점을 획득

※ 교과 반영 방법은?

인문계 : 국, 수, 영, 사회(교과군)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모두 반영

과목별 표준화 점수(Z)를 반영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을 것.

그에 대한 근거 2가지

1) 첫 번째 근거

EX) 연세대 (1~6등급과 7~9등급을 구분)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평가결과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
	교과	비교과		
70%	20%	10%	인문/사회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사회/과학) 영역의 등급 합이 6이내
			자연 (의예·치의예 제외)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7이내 (단, 수학B와 과학탐구의 등급합이 4이내이어야 함)
			의예·치의예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 탐구영역은 다음과 같이 반영함.
 - 사회탐구: 자유선택 2과목 응시, 2과목 중 상위 1과목 반영
 - 과학탐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1, 2 구분 없음) 응시, 2과목 중 상위 1과목 반영
(단,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의 평균등급을 반영함)
-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에 모두 응시할 경우 인문(사회)계열로 교차지원 가능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은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하게 적용함.
- 논술시험 자연계열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수학 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완료 후 타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과목을 응시할 수 없음.
- 논술시험 시 과학과목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목 간 점수의 차이는 보정함.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교과영역 반영 성적 산출 기준

과목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20	19.8	19.6	19.4	19.2	19	18	16	12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단위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그 외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두 번째 근거

비교내신대상자(2010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논술 점수에 의해 내신이 산출 됨

5. 최저학력기준

경영, 정경, 자유전공 : 국/수/영 등급 합 5등급 이내

인문계열 (경영, 정경, 자전 제외) : 국/수/영/사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사탐은 2과목의 평균등급)

인문계열 최저학력기준에서, 사탐의 경우 "평균등급"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세대와 비교했을 때 사탐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세대는 국/수/영/탐 4개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 & 탐구는 상위 1개 과목만 반영)

논술 (인문계 A)

아래의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①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 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썩먹기 시작했다.

②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 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평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 발품 값) 1천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목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전에 탐관이 있어 한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전례로 핑계 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피어 영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각가가 1천 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감영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는 불과 대여섯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꼭 100냥씩이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령으로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③

(가) 1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있고, 각 시민들에게는 $\{1, 2, \dots, 9, 10\}$ 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 폰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시중에는 A와 B 두 종류의 메신저 앱이 있고, 시민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한다.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는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시민 x 는 A를 사용할 때와 B를 사용할 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데, 그 만족감은 다음의 식과 같다.

$$\begin{aligned} \text{A를 사용할 때 만족감} &= 2x \\ \text{B를 사용할 때 만족감} &= 10-x \\ \text{단, } x &= 1, 2, \dots, 10 \text{이다.} \end{aligned}$$

예컨대, 시민 1이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2고,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9다.

(나) (가)에서 설명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더하여 같은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앱 사용으로부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한다. 만약, A의 사용자 수가 n 이라면, A를 사용할 때 시민 x 가 얻는 총편익은 $2x+n$ 이고 B를 사용할 때 시민 x 가 얻는 총편익은 $10-x+(10-n)$ 이다.

(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메신저 앱 B가 사라지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이 개선된 메신저 앱 C가 출시되었다. 시민 x 가 C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5$ 이다.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II. 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1. 만약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 만족감만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 서비스를 고른다면, 몇 명의 시민들이 A를 쓸 것인가?
2. 이제 시민들은 (나)에서처럼 총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른다. 각 앱의 사용자가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와 같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앱을 다른 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겠는가? (단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 경우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민의 총편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럼에도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오. 이러한 결과를 간략히 해석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된 글에서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 은 1,000자(±50자)로 하고, II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논술 (인문계 B)

아래의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①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 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썩먹기 시작했다.

②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를 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 발품 값) 1천 200냥도 필시 다 소

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목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전에 탐관이 있어 한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전례로 핑계 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피어 영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각가가 1천 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감영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는 불과 대여섯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꼭 100냥씩이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령으로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③

(가) 1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있고, 각 시민들에게는 $\{1, 2, \dots, 9, 10\}$ 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 폰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시중에는 A와 B 두 종류의 메신저 앱이 있고, 시민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한다.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는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시민 x 는 A를 사용할 때와 B를 사용할 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데, 그 만족감은 다음의 식과 같다.

$$A \text{를 사용할 때 만족감} = 2x$$

$$B \text{를 사용할 때 만족감} = 10 - x$$

$$\text{단, } x=1, 2, \dots, 10 \text{이다.}$$

예컨대, 시민 1이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2고,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9다.

(나) (가)에서 설명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더하여 같은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앱 사용으로부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한다. 만약, A의 사용자 수가 n 이라면, A를 사용할 때 시민 x 가 얻는 총편익은 $2x+n$ 이고 B를 사용할 때 시민 x 가 얻는 총편익은 $10-x+(10-n)$ 이다.

(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메신저 앱 B가 사라지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이 개선된 메신저 앱 C가 출시되었다. 시민 x 가 C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5$ 이다.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II. 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1. 만약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 만족감만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 서비스를 고른다면, 몇 명의 시민들이 A를 쓸 것인가?
2. 이제 시민들은 (나)에서처럼 총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른다. 각 앱의 사용자가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와 같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앱을 다른 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겠는가? (단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 경우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민의 총편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럼에도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오. 이러한 결과를 간략히 해석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된 글에서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 은 1,000자(± 50 자)로 하고, II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I.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인문계)

1. 201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07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한 ‘통합형 논술’을 통해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

첫째, 수험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후 본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본교는 대학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학능력 중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 ②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 ③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 ④ 인간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리적 사고 능력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신 성적의 학교별 격차와 수능시험 성적의 변별력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내신 성적이나 수능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없거나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 수학능력이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고사는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보완과 보정의 역할을 한다.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이런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술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상기한 수학능력 중 ①~③의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논술’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려는 요소에 약간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자신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상기한 대학 수학능력 중 ①과 ②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③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조점을 두었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전에 비해 ③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다고 ①과 ②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③의 능력은 ①과 ②의 능력에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비유가 중점 평가요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을 평가하려 하였다.

-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고려대학교는 2014년 5월 10일 모의논술을 실시하여 이렇게 변화된 중점 평가요소를 수험생들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후술될 모의 논술고사 답안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직도 이전 몇 해 동안의 논술고사 평가 방향에 맞춰 논술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본 논술고사 자료집이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에 반영될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 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는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라는 큰 주제 하에 느슨하게 연결된 두 개의 제시문,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그리고 두 개의 큰 논제로 구성되었다.

글 ①은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네 가지를 지적하고 사례를 들어 그 의미를 설명한다. 그 네 가지 요인이란 경제적 이점, 사회적 가치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 기술 이해의 난이도를 일컫는다. 새로운 기술은 우선 경제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야 사회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사회적인 가치관도 경제적인 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브랜드의 가치가 상품의 유용성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새로운 기술은 기득권의 저항을 만날 때 사회에 도입되지 못하기도 한다. 쿼터자판이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판 배열 방식의 도입을 막은 경우나 트랜지스터가 그 소자의 개발국인 미국이 아닌 일본의 회사에서 사용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기술의 수용은 그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발전의 주요 동력이다. 그러나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자체의 우수성 못지않게 사회적 조건도 기술의 수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우

에 따라서는 기술 자체보다 사회적 조건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글은 수험생들이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을 등치시키는 단순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입체적인 사유를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이 글의 출전이다.

글 ②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운데에서 발췌하여 논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가감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목민심서』라는 책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방 행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수령의 '부임'에서부터 직무가 끝나 면직이 되는 '해관(解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제3편인 '봉공(奉公)'에서 발췌하였다. 주요 논지는 공적 재원인 절목(節目)의 폐해와 개선 방안이다.

글 ②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각 고을의 공공 재원을 관리하는 창고에서 일종의 지출 항목으로 설정한 절목의 폐해를 지적한다. 이 공용의 재정은 고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수령이 그 절목을 사사롭게 설정하거나 해마다 늘려나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당한 착취에 시달리고 나날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애민정치를 표방하는 유교적 정치원리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모순을 증대시키는 조선후기의 위기적 현실을 정약용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비합리적인 절목에 대한 예시 단락이다. 여러 가지의 예시를 통해 정약용이 파악한 절목의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의 지출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또는 허위로 만들어진 조목들이다. 둘째는 한번 설정된 조목들은 관례로 굳어져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러한 조목의 설정과 유지에는 탐학한 수령과 간교한 아전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단락은 잘못된 절목에 대한 개선 방안의 제시이다. 공공의 재정은 그 지출이 공적인 사안에 국한되어야 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에게 형평성 있게 분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절목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하거나 고치고, 사용 물품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기준을 제시하며, 재정 부담 또한 백성들이 고루 분담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의 방안들이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약용은 국가기강의 이완을 틈타 당대의 지방행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착취와 수탈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백성을 위한 참다운 정책 실현의 방안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는 목민심서의 일관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글 ③은 기존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인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기존 기술을 여전히 사용할 가능성을 수치적 예를 통해 보여주는 '모형'이다. 시민들은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하나는 앱 자체의 사용자 편의성이 주는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앱을 통하여 통신할 수 있는 사람수에 기인한 편익이다. 후자의 편익은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커진다. 메신저 앱이 처음 출현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편익 또한 커지므로 모든 사용자가 그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단 다수의 사용자를 가진 앱이 존재하게 되면, 편의성이 개선된 새로운 앱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앱의 사용자가 많아 그로 인한 편익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글 ①에서 제시된 '퀴터 자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가) 논제 I

1) 출제 의도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느슨하게 연결되는 두 개의 글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이 글들을 ‘활용’하여 글들과 느슨하게 연관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지난 몇 해 동안 실시해왔던 고려대학교 논술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려대 논술문제는 제시된 글들 간의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독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2014학년도 논술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제되었다.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4학년도 논술고사 A형)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진행되어온 논술고사 출제와 채점을 통해, 논술의 중점적인 평가요소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논술고사 출제진은 논술문제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하였고, 이번 모의 논술고사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출제진의 고민을 반영한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제시문 수를 줄이고 느슨하게 관련된 비교적 긴 글들을 제시한 후, 이 글들과 느슨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논술하도록 하였다.

둘째, 같은 제시문들을 활용하되, 논술의 주제를 ‘사회발전’(A유형)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B유형)라고 다르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각각에 대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 고사가 모의고사인 점을 고려하여, 논제를 조금 다르게 서술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A유형: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B유형: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시오.

셋째, 2014학년도 논술고사는 답안의 분량을 900(±50)자로 설정했던 반면 올해 모의 논술고사는 그것을 1,000(±50)자로 증가하였다. 답안 분량의 조정 역시 학생들이 비교적 긴 호흡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출제진은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 답안 작성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2015학년도 논술고사에 배당된 시간이 이미 공시되었기 때문에 출제진의 욕심만큼 원고 분량을 늘릴 수 없었다.

2) 평가 항목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ㄱ) 글의 내용:

- (i) 글 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그 채택은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 기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수용성 여부 등이 있다.
 - 기술발전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 기술발전의 어려움은 관행 혁파의 어려움을 예증한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행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혁파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시발점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 (ii) 글 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특정한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장(長)의 결단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 기득권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을 혁파해야 할 경우가 있다.
 - 관행의 혁파는 종종 급진적인 형태를 띤다.
 - 관행의 혁파를 고려함에 있어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을 두루 살피는 안목이 필요하다.
 - 관행은 무조건 혁파의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 또한 중요하다.

- (iii) 수험생은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한다. 여기서 글의 ‘활용’은 주어진 글의 단순한 요약이나 글에 나타난 내용의 적당한 배합을 뜻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주어진 글에서 발견하는 여러 내용들을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에 맞춰 적절히 취사선택한 후 그것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요구에 대해 수험생의 글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유형 A에서는 ‘사회발전’이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려 하였다. 유형 B에서는 유형 A보다 상대적으로 글 내용의 폭을 제한하는 주제를 제시하지만, ‘관행’과 ‘사회변화’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논의 전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관행은 반드시 사회변화의 장애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관행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또는 관행의 혁파 없는 사회발전은 불가능한가?)
- 사회변화는 기존 관행의 혁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가?
-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고 할 수 없는가?
- 사회변화에 있어 사적인 기득권의 포기와 공공성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iv)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답안은 좋은 답안이 아니다.

- 특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논술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 제시문의 요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즉, 제시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경우).
- 특정한 논제를 제시하더라도 제시된 논제가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
- 자신의 논제에 대해 독창적인 논거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들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
- 두 개의 제시문을 단순 비교하거나, 어느 하나를 기준삼아 다른 하나를 해석 및 분석하는 경우(즉, 무조건적으로 고려대학교의 기존 논술 형식을 따른 경우).

ㄴ) 글의 구성

- (i)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성격의 글임을 고려할 때,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ii)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iii) 문장이 유려하며,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ㄷ) 글의 형식

- (i)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하였는가?

- (ii) 비문을 쓰지 않았는가?
- (iii)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였는가?

나) 논제 II

1) 출제 의도

글 ①의 ‘퀴터 자판’의 경우는 기존 기술에 비해 더 효율적인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기존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글 ③은 이런 경우를 수학적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모형’이다. 논제 II는 이런 수리적 모형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치적으로 얻은 결과를 ‘인문학-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평가 항목

1. A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이 B를 사용할 때보다 크면, A를 사용한다. 즉, $2x > 10 - x$ 또는 $x > 10/3$ 인 시민이 A를 사용한다. (표를 통하여 비교하여도 됨) 이를 만족하는 시민은 4, 5, ..., 9, 10이므로 모두 7명이다.

2. 시민 3을 고려해 보자. 그가 앱 B를 사용할 때 얻는 편익은 만족감 $10 - 3 = 7$ 과 사용자 수로부터 얻는 편익 3을 더한 10이다. 만약 그가 앱 A를 사용한다면 편익은 $2 \times 3 = 6$ 과 7을 더한 13이다. 따라서 그는 앱 A로 교체할 용의가 있다.

이제 10명 모두가 A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족감만을 고려하면 B를 사용할 용의가 가장 큰 사용자는 시민 1이다. 이때 시민 1이 A를 사용하는 경우 총편익은 $2 \times 1 + 10 = 12$ 이고, B를 사용할 경우 총편익은 $10 - 1 + 0 = 9$ 이다. 따라서 아무도 B로 교체할 용의가 없으므로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 3이 전환하여 $n = 8$ 이 되고, 이후 시민 2가 전환하여 $n = 9$ 가 되며, 결국 시민 1도 전환한다는 식의 설명도 가능하다.)

3. 모두가 C를 사용하면 시민 x 의 편익은 $2x + 5 + 10$ 이고 모두가 A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 + 10$ 이므로, 시민 모두가 C를 사용할 때의 편익이 더 크다. 만약 모두가 A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민 x 의 편익은 $2x + 10$ 이고, B로 교체할 때의 편익은 $2x + 5$ 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편익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사용자 수에 시민의 선택을 반영해 $2x + 9$ 와 $2x + 6$ 을 비교해도 좋다.) 따라서 아무도 B로 교체할 용의가 없다.

모든 시민이 사용 만족감 면에서 B를 A보다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 수로 인한 편익 때문에 B로 교체할 용의가 없다. 기존 사용자 수 때문에 더 나은 앱이 나와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1. 논제 I

가) 총평

이번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논제 I의 답안 채점을 통해 이른바 ‘고려대 논술 유형’이 수험생들의 의식 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매우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유형과 전혀 다른 형태의 논제가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종전의 유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정도였다. 지난 몇 해에 걸쳐 고려대학교의 인문계 논술시험은 3~4개 정도로 주어지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할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형태의 시험은 수험생의 이해력과 논리적 구성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는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출제진은 이처럼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였다. 이번 모의 논술시험은 그 고민의 소산으로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비정상적인 시험 준비 방식을 바로 잡고 논술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인문계 모의 논술시험 논제 I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완성도 높은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제에 충실한 답안은 종전의 유형에 맞춘 답안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유형에서는 답안의 구성과 거기서 다룰 내용이 이미 논제에 제시되어 있었고 수험생은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면 되었다. 그에 비해 이번 모의논술의 논제는 보편적인 의미의 ‘잘된 글’을 쓸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한다. 답안이 ‘잘된 글’이 되려면 구성의 면에서 완결되어야 하며, 국어 문법의 면에서 정확한 문장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제시문은 그 과정에서 참고 문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해서도 안 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시문의 논지를 추종하는 경우도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한다. 제시문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한 논의 과정에 포섭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연한 내용은 ‘논술하시오’라는 논제의 지시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 훌륭한 논술문은 정확한 문장으로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여 논자만의 창의적인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

모의논술 답안들에 대한 채점을 통해 전술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답안이 논제의 지시는 도외시하고 종전의 유형에 따라 작성되었다.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 ①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② 제시문을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다.
- ③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는다.
- ④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⑤ 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

상기한 경우들처럼 제시문에 수렴되는 답안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 스스로 논의를 구성하고 제시문을 주체적으로 포섭하면서 글을 작성한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학

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시험을 통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인문계 논술시험의 A, B 유형별 문제 I의 우수 답안과 부족 답안의 사례들이다. (답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타자하였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례마다 논평이 첨부되었다. 그 논평은 해당 답안을 채점한 채점 위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나) 우수 답안의 사례

A형 사례 1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자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킬 때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는 그 스스로가 가장 능률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논평>

위 답안은 ①과 ②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의 차원을 기술과 제도 두 가지로 나누고, 올바른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논의하면서 독창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①과 ②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발전을 효율적인 기술의 수용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제도의 수립으로 대별하여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로 기득권의 저항과 배타적 이익 추구를 지적하고 있다. ①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기득권의 반대로 좌절된 점과 ②에서 제도의 혁신이 기득권의 이기적인 이익 수호를 위해 시도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을 중요한 주제어로 삼아 사회발전의 장애요인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발전이 좌절되면 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되고 불평등의 심화는 또다시 사회발전의 좌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묵과하기보다 소시민과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서서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 답안의 필자는 ①과 ②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의 장애물과 원동력에 대한 본인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글의 구성 또한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잘 따르고 있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

법 준수 등 글의 형식의 면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A형 사례 2

사회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제시문1에서 언급된 '기술'과 같은 물질문화의 발전과 제시문2에서 언급된 '법·제도' 등의 비물질 문화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사회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혁신은 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따라서 비물질 문화의 발전보다 일반적으로 선행한다.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그 기술의 경제적 이점인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견은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국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 내에서 알맞은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그것이 기존의 산업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신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발전의 양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술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을 야기한다. 제시문2에서 적절한 법·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21세기 초,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을 때는 모두가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공룡 기업들의 횡포가 전부였다. 물질 문화는 맹목적인 성장만을 좇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의 사회발전은 반드시 적당한 규제를 수반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발전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질적 사회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의 갑을관계를 청산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논평>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글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글과 느슨하게 연결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는 그러한 출제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답안은 이러한 성격의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할 만한 글이면서도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기에 우수답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본 답안은 두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논거들, 즉 기술발전의 수용에 관련된 여러 논점들과 제도적 개혁에 관련된 여러 논점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본 논제는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발견되는 논거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그러한 논거들에 의존하여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잘 구성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답안은 사회발전이 '물질문화' 및 '비물질 문화' 두 측면에서의 발전을 동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관점 자체는 평범한 논리에 의존한 것으로서 독창성이 다소 결여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시문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도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신만의 논제를 때로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논술문의 성격을 지닌 글이 만족시켜야 할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 제시문의 활용 또한 단순한 직접 인용을 넘어 본인의 언어로 재해석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재해석은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글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진행되고 있으며 물질문화를 논하는 곳과 비물질 문화를 논하는 곳이 분량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분명하며, 특히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논의를 단순 요약하지 않고 자신만의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본 답안을 돋보이게 해 준다.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분량 또한 매우 적절하다.

B형 사례 1

관행과 사회변화는 상대적인 개념이자 순환적이다. 처음엔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였던 것이 오래 지속되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축적되거나 변동을 겪기도 한다.

제시문 ①과 ②는 사회변화와 관행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본다. ①에선 사회변화의 요소가 현재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행과 합치되는 면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보다 더 나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회변화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문화별로 관행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회변동도 다르다.

그러나 제시문 ②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꼭 기존의 관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전례를 들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관행들을 만들어낸 이전 수령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지 않은 관행들은 전면적으로 변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좀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사회변화가 만약 후대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행과 사회 변화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이다. 관행이 이미 공정하고 현 사회에 적합하다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회변화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존의 관행이 구성원 전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사회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관행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거세거나, 변화를 통한 이익이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경우엔 사회 변화가 좌절될 수도 있다.

기술 발전 같은 사회변동 용인이 등장했을 때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채택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이다. 항상 이 변화가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리에만 따라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논평>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하는 이 글은 우선 그 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글들에 비해 우수했다. 필자는 전체 글을 크게 세 개의 부분, 네 문단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문단 간의 구조가 비교적 논리적이었다.

우선 첫 부분에서 필자는 관행과 사회변화가 '순환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많은 답안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기보다는 제시문 안에 있는 표현을 적당히 재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 학생은 ①과 ②의 요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글로 재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두 제시문이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문단에서는 처음에 본인이 밝혔던 관행과 사회변화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함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 즉 기술발전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경우, 그 수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답안은 글의 구성이나 내용뿐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원고지 사용법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사회변화'와 '사회 변화'를 혼용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B형 사례 2

'관행'은 그 행동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에서 오랫동안 행해서 굳어진 일이다. 관행은 ②의 필자처럼 누군가 그 행동의 모순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누군가 관행을 비로소 평가하게 되면, 게다가 그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사람들은 그 관행을 바꿀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관행보다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람들은 사회변화를 외친다.

하지만 ①을 통해 생각할 때, 새롭게 수용되어 행해진 사회 변화가 관행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①에서 사회가 새 발명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증가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 기득권과의 양립가능성, 그 기술이 주는 이점의 가시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더 큰 편익을 생각한다면 혁신된 기술을 지닌 발명품을 수용하겠지만 그들은 사회적 명성, 기득권과의 관계 등 다소 동떨어진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관행에 맞서 사회 변화를 일으킬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도 관행과는 다를 수 있어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필시 관행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또한 누군가에게만 이점일 테고 결국 다른 모습으로 기존의 관행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고, 또 새로운 관행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관행과 사회변화의 양면성과 이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②의 필자처럼 현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는 개인이다. 그런 개인들이 많을 때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익숙함에 맞설 사회변화의 수용을 고려할 때도 다양한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성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을 때 ②에 나타난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옳은'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

<논평>

①과 ②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논제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글의 논지를 전개해 나간 글이라 볼 수 있다. '관행'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글의 첫 대목은 이후 전개될 내용 전반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 글의 장점은 '관행'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①과 ②를 서로 비교하거나 대립시켰다는 데 있다. 이 글은 ①과 ②를 재치 있게 밀고 당기면서 '관행'을 비판하거나 '관행'의 양면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을 사회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관 지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사회발전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진단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은 앞서 전개한 논지 전반에 탄력을 받아 무리 없이 설득력을 확보해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②의 필자처럼'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들이 더러 목격되었다는 점, 매끄럽고 논리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지나치게 '관행'을 중심으로만 논지를 이끌어내고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다) 부족 답안의 사례

A형 사례 1

사회발전은 다수의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의 도모를 위해서 사회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만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라도 새로이 재창조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발전은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사회적 개별성, 위신과 혁신, 투명성, 가시성,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을 평가해줄 내부적인 피드백이다.

사회발전은 각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사회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지닌 유동성 있는 존재이며, 자연환경,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러한 사회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면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정과 선호를 전제로 하는 존재이다. 사회발전이 그 구성원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사회의 위신은 저절로 추락하게 되고 발전은 무의미해진다. 즉 사회발전은 그 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은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제도나 사회적요소를 그대로 따르는 관성적인 태도는 매너리즘에 빠져 잘못된 투자와,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설정의 오류를 가져온다. 즉, 사회발전은 지속적인 변화

를 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회 변동적 요인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해야한다.

사회발전은 또한 투명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지녀야한다. 내부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영향을 기대할 수 없으며 투명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눈에 잘 띄며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발전의 필요요소인 것이다.

사회는 내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회발전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를 설정하여 사회발전의 개별성, 위신, 혁신, 투명성과 가시성을 평가할 때 사회발전의 방향과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재설정할 때 유리하다. 또한 내부적인 피드백은 사회발전이 어느 특정집단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위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평가, 비판해야 한다.

<논평>

위 답안은 사회발전에 관해 “내부적인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글의 흐름도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어서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로 주어진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제시문과 별 관련이 없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지 않은 답안의 사례에 들게 되었다. 사회발전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준(사회적 개별성, 위신과 혁신, 투명성, 가시성 등)을 자의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회발전이 자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글의 표현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띈다(예: “내부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발전은 사회구성원들의 영향을 기대할 수 없으며 투명성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①과 ②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근거가 극히 박약하며 제시문들과의 관련 하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다. 제시문의 활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시문들을 과도하게 인용한다는 점인데, 이 답안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제시문을 전혀 인용하지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제시문들을 지나치게 인용하여 답안의 대부분을 제시문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은 답안이지만, 위 답안처럼 제시문을 전혀 언급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그냥 써내려간 답안도 좋은 답안이 아니다.

A형 사례 2

①과 ②는 각각 사회의 발명품 수용 기준과 절목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는데 ‘사회발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

①에서 사회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기술을 사회가 수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첫 번째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다. 이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같은 기술이 어느 곳에서는 유용해도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이 있다. 별 차이 없는 물건들이라도 사회 내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물건을 선호하는 것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 있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 사회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 먼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를 봤을 때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면 기술의 수용이 수월해진다.

②에서 절목은 사회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수령들과 아전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목에 명목을 추가해 백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수령들이 바뀔수록 명목들이 추가되어 착취는 점점 심해진다. ②의 서술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창고들의 절목을 조사해 불필요한 조목들은 없애고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뒷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①과 ②를 통해 사회발전은 기술 수용과 나쁜 전통을 고치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논평>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글 2개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글과 느슨하게 연결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대해 논술하

라는 논제는 그러한 출제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발전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며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자신의 관점에서의 재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본 답안이 제시문의 내용이나 표현 등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은 두 제시문들이 사회발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사회발전에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수험생이 사회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나 입장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각각의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논점들 간의 관계를 수험생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 각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논거들을 일반화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예컨대 답안의 후반부에 절목이 사회발전의 방해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절목이라는 구체적인 예가 대표하는 사회발전의 요인이나 방해물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집합(예를 들어 '제도적 측면' 등)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론에서 자신의 주된 논제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결론도 본론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분량의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B형 사례 1

글①에서는 사회변화의 요건을 네 가지를 서술하고 있고, 글②에서는 필자가 고을 창고의 관례의 폐단과 앞으로의 개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글①의 네 가지 변동 요건을 통해 글②에 나타난 관례의 부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글①에서는 기술의 수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보다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②의 폐단의 경우, 폐단을 시정한다고 해서 관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되려 줄어들기만 한다. 이 때문에 폐단의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글①에서는 품질에 관계없이 디자인이 제품을 고르는 사회적 모습을 통해, 사회변화의 요건에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글②에서는 글①의 조건과 유사하게 당시 사회가 탐관과 수탈이 만연하였다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부패한 사회적 가치관을 제시하였고, 이는 어쩌면 고을 수령이 위신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을 글①이 제시해 주었다. 예시로써는, 효율적인 자판이 만들어졌음에도 쿼티 자판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효율적인 자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와 유사한 미국 전자 산업계의 트랜지스터 사용 거부와 영국의 가스사용의 지속이 있다. 글②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이전 탐관의 수탈을 전례로 삼아, 이후에 오는 수령들이 수탈을 지속한다는 대목에서, 어쩌면 글①의 두 번째 요건과 유사하게도,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한 수탈의 제도와 그것을 이용하는 관리들이 기득권층이 되어 제도를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④는 새 기술의 이점이 얼마나 쉽게 보이느냐의 난이도의 문제인데, 글②의 현상에서는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수탈에 이용된 제도의 이점이 관리들에게 얼마나 쉽게 보였느냐로써 유사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건으로 기존의 수탈제도는 지속되었음이 보여진다. 허나, 글②의 필자가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첫째 요건인 경제적 이익을 사익이 아닌 공익으로 보는 등,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요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논평>

이 답안은 논제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의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 듯 답안을 작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글 전체를 제시문 ①에서 언급된 '발명품의 수용에 미치는 요인'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즉 경제적 이점, 사회적 가치관, 기득권과의 양립, 기술이점의 확인 용이성 등을 가지고 제시문 ②를 해석하는 형태로 글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시문의 내용을 매우 많이 인용하고 반복하는 꼴이

되었다. 1050자로 원고지를 가득 채웠지만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필자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줄 정도가 결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수탈제도의 지속 등을 논하며 글을 맺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원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비문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사회변화의 요건을 네 가지를”은 “사회변화의 요건으로 네 가지를”이 자연스럽다. 쉼표의 남용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10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쓰면서 문장이 길고 늘어지는 것도 좋지 않은 글쓰기 습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도 몇 군데 오류가 보이므로 앞으로 글쓰기의 기본부터 다질 필요가 있다.

B형 사례 2

①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변화시키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①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하나의 사례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보다 경제적 이점이 많아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발명품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회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그 발명품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에 부합되어야 수용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은 기득권과의 양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기존의 기술이 그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퍼져 있다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쉬워야 한다. 기술의 이점을 알기 어렵다면 그 기술의 수용 또한 어려울 것이다.

②에서는 ‘절목’이라는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변화를 시도하는 한 수령의 글이 소개되어 있다.

절목은 예로부터 고을의 수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임의로 새로운 영을 만들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관례이다. 이 글을 쓴 수령은 이러한 불공평한 관행을 분석하여 비판하였고 사회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는 여러 창고의 절목을 조사하여 사리에 맞는 내용만을 남겨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 명령을 시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①의 내용처럼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에 부합해야 하며 기득권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이점을 인식할 수 있는 난이도를 쉽게 해야 한다. 또한 ②처럼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논평>

논술은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요약의 전형을 보여준다. ①은 이러이러하다, ②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으로 글의 3/4을 할애했다. 결론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는 글의 대부분을 요약하는 데 할애했기 때문이다. 물론 논술에서 요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좋은 글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요지를 파악하여 간결하게 제시하는 반면, 나쁜 글은 요약으로 일관하며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출하는 데 급급하다. 이 글의 결론도 결국 요약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①의 내용처럼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하고 [...] 또한 ②처럼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맺은 결론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서로 비교해가며 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각의 제시문에서 성찰의 주제를 도출시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 각각에 지나치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급급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사실 아무 것도 논술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논제 II

가) 총평

일부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답안은 1번 소논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답했다. 우수 답안과 부족 답안의 차이는 2번 소논제에 대한 응답에서 주로 나타난다. 부족 답안의 경우 2번 소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나) 우수 답안의 사례

사례 1

1. $2x > 10-x$ 인 시민만 메신저 A를 고를 것이다.

$$\begin{aligned} 2x &> 10 - x \\ 3x &> 10 \\ x &> \frac{10}{3} \approx 3.3 \end{aligned}$$

∴ 시민 4 ~ 시민 10이 A를 사용할 것이므로
총 7명의 시민들이 A를 고를 것이다.

2. 메신저 A의 경우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은 7,
메신저 B의 경우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은 3이다.
따라서 추가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메신저 A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었던
시민4~시민 10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민1~시민3이 각각 A, B를 택함으로서
얻게 될 총 편익을 비교해 보면,

	A	B
<시민1>	2+8=10	9+3=12
<시민2>	4+8=12	> 8+3=11
<시민3>	6+8=14	> 7+3=10

이 되므로 시민 2와 시민 3은 A로 선택을 바꿀 것이다.

시민 2와 시민 3이 A로 선택을 바꾸면 시민 1이 A를 선택할 때 총 편익은 $2+10=12$, B를 선택할 때 총 편익은 $9+1=10$ 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시민 1도 A로 선택을 바꿀 것이고,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begin{aligned} \sum_{K=1}^{10} (2K+10) \\ = 2 \times (1+2+ \dots +9+10) + 10 \times 10 = 2 \times 55 + 10 \times 10 \\ = 110+100 = 210 \text{ 이다.} \end{aligned}$$

그리고 시민 모두가 C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begin{aligned} &= 2 \times (1+2+ \dots +9+10) + 5 \times 10 + 10 \times 10 \\ &= 2 \times 55 + 50 + 100 = 110 + 150 = 260 \text{ 이다.} \end{aligned}$$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총 편익이 크다.

그러나 각 개인이 볼 때, 모두가 A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C로 바꿀 경우 총 편익은 $2x+5+1$, 즉 $2x+6$ 으로 자신이 선택을 바꾸지 않고 A에 남아있을 때보다 적다.

따라서 시민들 중 누구도 A에서 C로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각 시민이 메신저를 선택할 때 사회 구성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이 현상은 둘 다 배신하지 않으면 훨씬 적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선택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이익만을 따져 둘 다 배신하는 것을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논평>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 7과 3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앱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졌다. 비록 “앱을 바꿀 때 자신의 선택은 사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논제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앱을 쓰게 되면 그 앱의 사용자 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응답자 자신이 상정한 조건을 이용하여 답하였으나 논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민 3이 앱 A로 전환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시민 2가 앱 A로 전환하고 결국 시민 1도 앱 A로 전

환한다는 순차적 논증방식을 사용하여, 중국에는 모든 사용자가 앱 A를 사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시된 모범 답안과는 다른 논증방식이지만 우수답안으로서 손색없는 정당한 논증 방식이다.

소논제 3에 대해서도 모두가 앱 A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앱을 전환할 이유가 없음을 정확히 논증했다.

사례 2

1. 시민 X가 A 또는 B를 사용할 때, 얻는 만족감을 아래의 표와 같다.

X	1	2	3	4	5	...	10
A	2	4	6	8	10	...	20
B	9	8	7	6	5	...	0

이 때, 시민 1,2,3은 B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시민 4~10은 A를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는 7명의 시민이 A를 사용할 것이다.

2. 질문 1에서처럼 시민들이 각자의 사용 만족감을 고려하여 선택을 내릴 경우, A 7명, B 3명으로 A의 사용자 수가 더 많게 될 것이다.

이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까지 고려한 총 편익을 따진다면, 시민 3의 경우 A는 13의 총 편익을, B는 10의 총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 3은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다.

시민 3이 사용하는 앱이 B에서 A로 바뀔 경우 시민 2 역시 시민 3과 같은 이유로, 즉 A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이 B를 사용할 때의 총 편익보다 커지게 되므로, 자신이 사용하던 B를 A로 교체할 것이고, 그 결과 시민 1 역시 더 큰 총 편익을 제공하는 A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시민들이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르는 경우,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모든 시민이 C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5)+10$ 즉 $2X+15$ 인데 비해,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총 편익을 더 크게 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A를 사용하는 (다)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각자 $2X$ 의 사용 만족감에 사용자의 수 10을 더한 $2X+10$ 의 총 편익을 얻는 반면, 이 시점에서는 C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0이기 때문에 C를 사용할 때 얻는 총 편익이 $2X+5$ 에 그치게 된다. 즉, 사용 만족감만을 비교하면 A대신 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즉 기득권을 잡은 상품은 조금 더 개선된 신상품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평>

사용하는 논리는 위 우수 사례 1과 유사하나 수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언어적 설명만으로 핵심적 논리를 잘 짚어내어 우수한 답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모든 시민의 총편익의 합을 구하기보다 개개 시민에 있어 앱 C의 사용으로 인한 총편익이 크다는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같은 결론이라면 가급적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수식을 쓰는 것보다 설명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

다) 부족 답안의 사례

사례 1

1.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만족감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서비스를 고른다고 한다면 A와 B중 사용만족감이 큰 경우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X를 각 시민들에게 부여된 번호라고 했을 때, A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 B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10 - X$ 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A의 만족감이 B의 만족감보다 클 때 시민들은 A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A의 만족감 보다 큰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begin{aligned} 2X &> 10 - X \\ 3X &> 10 \\ X &> \frac{10}{3} \end{aligned}$$

X가 $\frac{10}{3}$ 보다 큰 경우라는 결과가 나온다. 단 여기서 X는 시민들에게 부여된 번호라는 점에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계산의 결과와 X의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4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되므로 총 7명이 된다.

2. 시민들이 (나)에 제시된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한 앱을 고른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은 A와 B중 총 편익이 큰 경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조건1>이라 하자. 현재 각 앱의 사용자는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에 의거하여 A는 7명, B는 3명이 된다. 이를 <조건2>라 하자.

문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를 <조건3>이라 하자. <조건1>, <조건2>, <조건3>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2X + 7$, B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17 - X$ 가 된다. A의 총 편익이 B의 총 편익보다 큰 경우는

$$\begin{aligned} 2X + 7 &> 17 - X \\ 3X &> 10 \\ X &> \frac{10}{3} \end{aligned}$$

X가 $\frac{10}{3}$ 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앞의

1과 마찬가지로 4,5,6,7,8,9,10이 사용자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는

$$\begin{aligned} 2X + 7 &< 17 - X \\ 3X &< 10 \\ X &< \frac{10}{3} \end{aligned}$$

X가 $\frac{10}{3}$ 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사용자는 1,2,3

이 된다. 즉, 현재 사용하는 앱을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없다. 또한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건1>, <조건3>에 따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경우의 총 편익은 $2X + 10$ 이 되고, 이 때 B의 총 편익은 $20 - X$ 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 X가 1,2,3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10명의 시민 모두 A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사례 2

1. 시민들이 A를 사용하기 위해 A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만족감이 B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만족감보다 커야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1	2	3	4	5	6	7	8	9	10
A	2	4	6	8	10	12	14	16	18	20
B	9	8	7	6	5	4	3	2	1	0

따라서 A의 만족감이 B의 만족감보다 더 큰 7명의 시민들이 A를 사용할 것이다.

2. A와 B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총 편익은 다음과 같다. A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7명 이므로, 시민 $X(4 \leq X \leq 10)$ 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2X+7$ 이다. 또, B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3명이므로, 시민 $X(1 \leq X \leq 3)$ 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10-X+7 = -X+17$ 이다.

1	2	3	4	5	6	7	8	9	10
16	15	14	15	17	19	21	23	25	27

이 때, B를 사용하는 시민 1,2,3,은 A로 교체할 것이며, 이 경우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모두가 C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총 편익은,

$$\sum_{X=1}^{10} (2X+5) = 110 + 50 = 160 \text{ 이다.}$$

하지만, 모두가 A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총 편익은,

$$\sum_{X=1}^{10} (2X+10) = 110 + 100 = 210 \text{ 이다.}$$

하지만, A의 총 편익을 계산함에 있어 A의 사용자 수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A의 사용자가 C로 전환한다면, A의 총 편익 또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

<논평>

부족사례로 열거된 두 경우 모두 제시문과 논제를 잘못 이해하였다. 제시문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앱 B의 추가 편익을 앱 A의 사용자 수로 계산하였다. 그 때문에 이후의 추론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앱 C를 사용할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을 누적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시문은 편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서 만족감을 제시하고, (나)에서 사용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015 고려대 모의 논술 길라잡이

[문제1 - 인문논술]

A형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 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B형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 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고려대 논술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은 고려대 논술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논술이 완성된 요리를 주고 그 요리에 사용된 재료를 찾아 내라는 것이었다면, 2015년 새롭게 개정된 고려대 논술은 학생들에게 재료를 주고 재료의 쓰임을 고려하여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대 입학 홈페이지의 논술특강과 2015 모의 논술 자료집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을 평가하려 하였다.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꽤나 모호한 설명이라 생각하기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4년 논술 기출문제와 비교해보겠습니다.

2014년 기출문제
I.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2015년 모의문제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I.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기존의 기출 문제가 최종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그 최종 목적지에 어떤 장소를 경유해서 도착해야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면, 2015년에 개정된 논술문제는 최종 목적지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상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요약이 아닌 ‘활용’이 필요

② 제시문을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다.

-> 자신의 주제에 제시문을 맞춰서 활용할 것

③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찾는다.

-> 논리적 연관관계를 찾아서 두 제시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재료로써 제시문들을 활용할 것

④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써 제시문을 밝힐 것

⑤ 제시문의 주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다.

-> 일반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언어로 제시문의 문장을 표현할 것.

서론이 길었나요? 기존의 논술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급할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여기에서 더 길어지면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세부적 개정사항은 각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예시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각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해봅시다.

제시문 ①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

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썰매기 시작했다.

※ 혁신적 기술이 발명되면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가?

-> 혁신적 기술이 발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혁신적 기술이라도 경제적 요인,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사회 전체의 수용성 여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시문①을 토대로 문제 B의 ‘관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

->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종종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기존 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하거나 채택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기존 사회의 저항을 ‘관행’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관행’은 한마디로 ‘인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발전의 어려움은 관행 혁파의 어려움을 예증한다.

※ 초기의 관행도 인습적 성격을 지니는가?

-> 초기의 관행은 혁신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사회에 정착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습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관행’은 ‘혁신’과 ‘인습’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리!!!

발명가가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은 ‘관행’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의 저항, 사회 전체의 수용성에 의해 채택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행’은 ‘인습’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행도 혁신적 기술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사회에 정착하며 생긴 것이므로 초기에는 ‘혁신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행은 ‘인습’과 ‘혁신’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제시문 ②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 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 발품 값) 1천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목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전에 탐관이 있어 한 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전례로 핑계 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피어 영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각가가 1천 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감영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는 불과 대여섯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꼭 100냥씩이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령으로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절목이란 무엇인가?

-> 각 고을의 공공 재원을 관리하는 창고에서 일종의 지출 항목으로 설정한 것을 절목이라고 한다. 이 절목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걷는 것이기에 절목이 비효율적으로 설정되어있거나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면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 제시문②를 토대로 문제 B의 ‘관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회발전’이라는 단어를 넣어 글을 완성하시오.

-> 절목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제대로 고쳐지지 아

니한 채 후임 관리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설정되거나 사사롭게 설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제도적 악습이라 할 수 있다. ‘관행’은 사회에 굳어진 생활양식을 뜻하므로 앞의 제도적 악습을 ‘관행’이라 부를 수 있다. 이 ‘관행’은 사회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 제시문②는 이러한 제도적 악습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사회변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글을 완성하시오.

기존의 절목의 문제점인 비효율성과 백성들의 부담가중을 타파하기 위하여 수령이 ‘공평한 관망자’적 입장으로 전면적으로 절목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공적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즉, ‘관행’을 깨는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진 위정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리!!!
절목은 공공 재원의 지출 항목을 의미하는데, 관리들이 쓸데없이 이 항목을 늘리는 관행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왔다. 이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제도적 악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위정자가 합리성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절목을 재조사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이제 1번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제시문의 논지파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시문들의 논지를 ‘활용’하여 답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고려대 논술자료집 中]
기존의 고려대 논술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구하였다. ①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③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전에 비해 ③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다 고 ①과 ②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③의 능력은 ①과 ②의 능력에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술자료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시문들은 ‘활용’되어야하지 ‘과도한 인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조차 없이 수험생의 독자적인 견해를 펼쳐나간다면 이 또한 감점 요인입니다. 따라서 중도(中道)가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기를 요구하는 A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평가요소들을 주의하며 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려대 논술 평가 기준
ㄱ) 글의 내용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 하여 ‘사회발전’ 혹은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견해가 창의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가
ㄴ) 글의 구성과 표현 ①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가 ② 논술문의 기본 구성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을 잘 따르고 있는가 ③ 문장이 유려 하며, 수준 높은 어휘 를 사용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ㄷ) 글의 형식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등이 적절한가

고려대논술은 다른 학교들의 논술과 달리 학교 측이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 쓴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형적 구조인 서론-본론-결론형식을 따라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우수답안들을 분석해보면 서론에서는 각 제시문들의 주제와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증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전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판식 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 고려대가 선정한 우수답안]
[서론 - 제시문들의 주제와 글의 방향 제시] 제시문 ①은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제시문 ②는 제도적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본론 -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논증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써 전개] 이를 토대로 논하면, 사회발전은 기술을 개발, 수용하여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제도의 수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킬 때에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켜 주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제도 또한 정의나 공정함과 같은 뜻을 확고히 하면 올바르게 수립되어진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①에서의 ‘타자 자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②에서의 문제 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모래시계형 사회구조, 사회의 양립화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또다시 기술의 수용과 정당한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결론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킬 때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는 그 스스로가 가장 능률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A형 - '사회변화']

[예시답안 - 서론]

제시문①은 혁신적 기술이, 제시문②는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들의 핵심주제를 밝히고 사회변화와 관련된 글이 이어질 것임을 제시, 그리고 그 사회변화는 유물론적 차원(기술)과 관념론적(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제시)

[예시답안 - 본론]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도서관의 책을 볼 수 있고, 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을 검색해볼 수 있으며, 독후감을 작성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이런 생활양식은 불과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발명 혹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①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 적응된 사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기술은 그 이전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혁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득권을 형성하고 보수화되어 새로운 혁신의 적용을 방해한다.

여기서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관념적 차원에서의 발전 또한 중요함이 드러난다. 새로운 시도가 그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류가 개방적 태도를 함양한다면 혁신적 기술이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방적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 형평적 태도 또한 길러야 한다. 제시문 ②의 절목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었더라면 공공재원의 낭비, 백성들의 부담 가중이라는 사회적 병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을 스마트폰이라는 예시로써 논증한 후 제시문①을 근거로써 그 한계도 드러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념론적 차원에서의 발전 또한 중요함을 제시. 그리고 그 발전 방향은 제시문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함을 밝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문②에서 엿 볼 수 있는 개방적, 형평적 태도의 필요성까지 제시)

[예시답안 - 결론]

결론적으로, 기술은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의식과 제도적 차원의 발전이 같이 진행될 때 가능하다. 아무리 혁신적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혁신적 기술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과 더불어 개방적, 합리적, 형평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물론적 차원과 관념론적 차원의 변증법적 발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의식의 발전 모두 중요하므로 기술적 혁신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개방적, 합리적, 형평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 그리고 이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정반합에 위치한 변증법적 발전 모델이라 결론내림)

[B형 - ‘관행’과 ‘사회발전’]

[예시답안 - 서론] 제시문②는 잘못된 관행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제시문①은 제 아무리 혁신적 기술이라도 기존 사회의 관행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들의 핵심주제를 ‘관행’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사회발전과 관련된 글이 이어질 것임을 제시)
[예시답안 - 본론] 제시문②에서 볼 수 있듯이 관행은 기득권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회에서 반복된 행위는 그것이 설사 그릇된 행위일지라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일종의 규범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 제시문 ①에서 볼 수 있듯이 관행은 사회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움’이 정착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혁신이 아무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이익과 상반된다면 기득권은 이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행이 항상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생활양식도 처음에는 진보적이며 혁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행은 그 나뭇의 가치를 가지는 검증받은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행은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진보적, 급진적인 것이 항상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관행은 그 검증받은 안정성으로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관행’이 기득권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제시문②를 통해 밝히고, 새로움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문①을 통해 밝힘. 위 두 가지 주장과 근거는 관행의 단점에 관한 것인데,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관행도 처음에는 그 나뭇의 가치를 가졌으며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을 장점으로 드러내어 관행이 가지는 양면적 모순성을 밝혀줌)
[예시답안 - 서론] 결론적으로 관행은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양면적 모순성을 지닌다. 따라서 관행의 가치를 인정하여 존중하되, 그 관행이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거나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는 것을 무작정 막는 역할을 한다면 제시문②의 화자처럼 그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며 관행의 양면적 모순성에 따라 그 관행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계속적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글을 마무리함)

[문제2- 수리논술]

인문논술은 꽤 큰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고려대는 수리논술에 관하여는 2015년에도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점도 25점으로 동일하고(인문논술은 25점), 문항도 3개로 기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논술에 대한 대비는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수리논술에서 인문논술과 연관되는 수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것을 글로 풀어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대 수리논술 문제는 수학적 실력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표현된 상황을 글로써 풀어내어 설명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모의논술 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숫자를 활용하여 쉽게 설명하도록 해야합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리논술’ 부분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수리논술’부분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수험생의 수학(數學)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리논술’을 위해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 실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넘지 않는다. ‘수리논술’의 목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수리적(양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맞추어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학 과목 실력보다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학적(양적)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통합형 논술’의 취지에 따라, **‘수리논술’ 부분은 ‘언어논술’ 부분에서 다루는 주제와 밀접하게 혹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주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논리적 비약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의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학생들은 수리논술이라는 표현 때문에 수학실력을 드러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숫자로만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내고 그에 대한 과정이나 설명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적 실력이 아닌 그 답안이 도출되는 논리와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논술 문제 3문제는 종합적 사고를 통해 누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각각 내릴 것이 아니라 2번은 1번에 대한 답을 통해, 3번은 1, 2번에 대한 답을 통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합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부족사례로 열거된 두 경우 모두 제시문과 논제를 잘못 이해하였다. 제시문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앱 B의 추가 편익을 앱 A의 사용자 수로 계산하였다. 그 때문에 이후의 추론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소문제 3에 대한 논술에서, 앱 C를 사용할 때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을 누적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시문은 편익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서 만족감을 제시하고, (나)에서 사용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제시했다. 따라서 (다)에서는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 본격적인 해설을 위해서 제시문과 문제를 본 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③
(가) 1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있고, 각 시민들에게는 $\{1, 2, \dots, 9, 10\}$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 폰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시중에는 A와 B 두 종류의 메신저 앱이 있고, 시민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한다.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는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시민 x는 A를 사용할 때와 B를 사용할 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는 데, 그 만족감은 다음의 식과 같다. A를 사용할 때 만족감 = $2x$ / B를 사용할 때 만족감 = $10-x$ (단, $x=1, 2, \dots, 10$이다.) 예컨대, 시민 1이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2고,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은 9다.
(나) (가)에서 설명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더하여 같은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앱 사용으로부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한다. 만약, A의 사용자 수가 n이라면, A를 사용할 때 시민 x가 얻는 총 편익은 $2x+n$이고 B를 사용할 때 시민 x가 얻는 총 편익은 $10-x+(10-n)$이다.
(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메신저 앱 B가 사라지고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이 개선된 메신저 앱 C가 출시되었다. 시민 x가 C를 사용할 때의 만족감은 $2x+5$이다.

II. ③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1. 만약 시민들이 (가)에 나타난 사용 만족감만을 고려하여 메신저 앱 서비스를 고른다면, 몇 명의 시민들이 A를 쓸 것인가.
2. 이제 시민들은 (나)에서처럼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할 앱을 고른다. 각 앱의 사용자가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와 같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앱을 다른 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겠는가? (단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 경우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민의 총 편익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럼에도 (다)의 상황에서는 A에서 C로 전환할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오. 이러한 결과를 간략히 해석하시오.

글 ③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관행’에 막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메신저 앱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데, 하나는 앱 자체의 사용자 편의성이 주는 만족감이고, 다른 하나는 앱을 통하여 통신할

수 있는 사람 수에 기인한 편익입니다. 전자는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논술에 나온 단어와 대응을 시키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수리논술이 인문논술과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답안 - 1번]

시민들은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이 B를 사용할 때보다 크다면, A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A를 사용할 때 만족감인 $2x$ 가 B를 사용할 때 만족감인 $10-x$ 보다 크다면 그 시민은 A를 사용할 것이다.

$$2x > 10-x$$

$$3x > 10$$

$$x > 3.333...$$

x 는 시민을 뜻하고 시민은 1~10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시민4부터 시민10까지는 A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A를 사용하는 시민은 총 7명이다.

(삼단 논법으로서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에 따라 논증을 하여 설득력을 담보함)

[예시답안 - 2번]

만족감에 추가로 사용자의 수에 따른 편익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A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용자가 B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더 적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B에서 A로 옮겨갈 시민이 없는지를 탐구해보아야 한다.

먼저 시민 3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추가적인 편익을 고려한다면 원래 사용하던 B에서 얻는 편익은 만족감과 사용자 수에 따른 편익을 더한 값인 10이다. $\{(10-3)+3\}$

그런데, 추가적 편익을 고려하여 A에서 얻는 총 편익을 계산하면 13이 된다.

$$\{(2 \times 3)+7\}$$

따라서 시민 3은 A로 교체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시민 2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시민 3이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추가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B에서 얻는 편익은 10이다. $\{(10-2)+2\}$ 그런데 A에서 얻는 편익은 12이다. $\{(2 \times 2)+8\}$

따라서 시민 2도 A로 교체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1의 상황을 파악해보자.

시민 2, 3이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추가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B에서 얻는 편익은 10이다. $\{(10-1)+1\}$ 그런데 A에서 얻는 편익은 11이다. $\{(2 \times 1)+9\}$

따라서 시민 1도 A로 교체를 할 것이다.

시민 1, 2, 3이 모두 A로 교체를 하였으므로 시민 10명 모두 A를 사용한다는 결론이 난다.

(추가적인 조건을 분석하고 1번 답안의 연장선상에서 논의의 시작점을 시민 3으로 정함. 그리고 시민 3, 시민 2, 시민 1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귀납법적으로 논증하여 결론을 내림)

※ 참고 - 2번 문제에 대한 오류 답안들

오류 답안 1

2. A와 B를 사용함에 따라 획득되는 총 편익은 다음과 같다. A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7명 이므로, 시민 $X(4 \leq X \leq 10)$ 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2X+7$ 이다. 또, B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3명이므로, 시민 $X(1 \leq X \leq 3)$ 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10-X+7=-X+17$ 이다.

1	2	3	4	5	6	7	8	9	10
16	15	14	15	17	19	21	23	25	27

이 때, B를 사용하는 시민 1,2,3,은 A로 교체할 것이며, 이 경우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류 답안 2

2. 시민들이 ④에 제시된 총 편익을 고려하여 그들이 사용한 앱을 고른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들은 A와 B중 총 편익이 큰 경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조건1>이라 하자. 현재 각 앱의 사용자는 위 1에서 구해진 결과에 의거하여 A는 7명, B는 3명이 된다. 이를 <조건2>라 하자.

문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앱의 사용자 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기존의 사용자 수이다. 이를 <조건3>이라 하자. <조건1>, <조건2>, <조건3>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2X+7$, B를 사용하는 시민의 총 편익은 $17-X$ 가 된다. A의 총 편익이 B의 총 편익보다 큰 경우는

$$\begin{aligned} 2X+7 &> 17-X \\ 3X &> 10 \\ X &> \frac{10}{3} \end{aligned}$$

X가 $\frac{10}{3}$ 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알의

1과 마찬가지로 4,5,6,7,8,9,10이 사용자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는

$$\begin{aligned} 2X+7 &< 17-X \\ 3X &< 10 \\ X &< \frac{10}{3} \end{aligned}$$

X가 $\frac{10}{3}$ 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사용자는 1,2,3

이 된다. 즉, 현재 사용하는 앱을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없다. 또한 10명의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건1>, <조건3>에 따라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경우의 총 편익은 $2X+10$ 이 되고, 이 때 B의 총 편익은 $20-X$ 가 된다. B의 총 편익이 A보다 큰 경우 X가 1,2,3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10명의 시민 모두 A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 부족사례로 열거된 두 경우 모두 제시문과 논제를 잘못 이해하였다. 제시문에서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 편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앱 B의 추가 편익을 앱 A의 사용자 수로 계산하였다. 즉, 1번 문제에서 나눈 A앱 7명, B앱 3명으로 편익을 고정해놓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후의 추론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시답안 - 3번]

모두 A를 사용할 때의 시민 x 의 편익은 $2x + 5 + 10$ 이다.

그런데 모두 C를 사용할 때의 시민 x 의 편익은 $2x + 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할 때의 시민들의 총 편익이 더 크다.

하지만 만족감과 사용자 수에 따른 추가편익에 따라 모든 시민이 A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시민 x 가 A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 + 10$ 인데 반해, C를 사용할 때의 편익은 $2x + 5 + 1$ 에 그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무도 C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위의 제시문①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관행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증을 하였고, 후에는 이 논의를 인문논술과 연결시켜서 제시문 ③도 답안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줌)

※ 참고 - 고려대 수리논술은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을 수를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임을 유의

비교 답안 A

3. 시민 모두가 A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sum_{k=1}^{10} (2k + 10) \\ = 2 \times (1+2+ \dots +9+10) + 10 \times 10 = 2 \times 55 + 10 \times 10 \\ = 110+100 = 210 \text{ 이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C를 사용할 때 시민 10명의 총 편익은

$$= 2 \times (1+2+ \dots +9+10) + 5 \times 10 + 10 \times 10 \\ = 2 \times 55 + 50 + 100 = 110 + 150 = 260 \text{ 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A를 사용하는 것보다 총 편익이 크다.

비교 답안 B

3. 모든 시민이 C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5)+10$ 즉 $2X+15$ 인데 비해, 모든 시민이 A를 사용할 경우 각자의 총 편익은 $2X+10$ 이므로 모두가 C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총 편익을 더 크게 한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A를 사용하는 (다)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각자 $2X$ 의 사용 만족감에 사용자의 수 10을 더한 $2X+10$ 의 총 편익을 얻는 반면, 이 시점에서는 C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0이기 때문에 C를 사용할 때 얻는 총 편익이 $2X+5$ 에 그치게 된다. 즉, 사용 만족감만을 비교하면 A대신 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즉 기득권을 잡은 상품은 조금 더 개선된 신상품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 답안 B가 비교 답안 A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

-> 사용하는 논리는 위 우수 사례 1과 유사하나 수식을 가급적 배제하고 언어적 설명만으로 핵심적 논리를 잘 짚어내어 우수한 답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논제 3에 대한 논술에서, 모든 시민의 총 편익의 합을 구하기보다 개개 시민에 있어 앱 C의 사용으로 인한 총 편익이 크다는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같은 결론이라면 가급적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수식을 쓰는 것보다 설명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

To be continued...

2014년 논술 길라잡이

2015 모의 논술 이전의 고려대 논술 문제들은 개정된 고려대 논술 출제유형에 맞추어 편집하였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을 그대로 제시한다면 개정된 논술과는 다른 채점기준에 맞춰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려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습관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개정된 고려대 논술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2015 모의논술자료집]

이번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문제 I의 답안 채점을 통해 이른바 ‘고려대 논술 유형’이 수험생들의 인식 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매우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유형과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종전의 유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정도였다. 지난 몇 해에 걸쳐 고려대학교의 인문계 논술시험은 3~4개 정도로 주어지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할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형태의 시험은 수험생의 이해력과 논리적 구성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해마다 거듭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그 형태를 겨냥하는 ‘맞춤형’ 시험 준비를 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차원의 언어 능력과 논리 구성력, 지식 처리 능력을 훈련할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특정한 형태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은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논술시험의 출제진은 이처럼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였다. 이번 모의 논술시험은 그 고민의 소산으로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비정상적인 시험 준비 방식을 바로 잡고 논술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